

PA-24

중부지역 나물콩의 재식거리가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정진호^{1*}, 이재은¹, 김성국¹, 전원태¹, 김민태¹, 신수현¹¹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,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**[서론]**

기후변화에 따른 나물콩의 재배지역의 이동 및 콩 작황 등 안정생산에 급격한 변이 발생하였고, 나물콩은 제주, 전남이 주산지로서 주산단지의 기상이변, 소득감소로 원료 수급이 불안하며, 최근 웰빙 등으로 나물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. 최근 소비자의 수요와 이모작 콩 재배의 확대에 따른 중·북부지역의 나물콩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. 특히 재식거리별 나물콩의 생육 및 수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.

[재료 및 방법]

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 시험 연구포장(수원)에서 풍산나물콩, 소청자, 해원, 해품을 시험재료로 사용하였다. 파종시기는 7월 10일에 파종하였다. 재식거리는 60×10cm, 60×15cm, 70×10cm, 70×15cm로 1주 2본이고, 시험구 면적은 250m²(휴장 5m 72열)로서 난괴법 3반복으로 시험구를 배치하였다. 재식거리에 따른 나물콩의 외관품질 관찰 및 입중분포를 4종류를 구분하여 조사하였고, 재식거리별로 생육특성, 백립중 및 수량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재식거리에 따른 나물콩의 생육을 보면 경장을 보면 70×10cm에서 가장 크고 60×10cm, 60×15cm는 같다. 경태는 60×10cm, 60×15cm, 70×10cm는 같고 70×15cm가 크게 나타났다. 험수와 립수는 70×15cm에 많았고, 나머지 처리는 큰 차이가 없었다. 또한 백립중도 넓게 심은 70×15cm에 높고 나머지 처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수량은 70×15cm > 70×10cm > 60×15cm > 60×10cm 순으로 높았다. 전체적으로 보면 70×15cm에서 험수, 립수, 백립중, 수량이 높았다. 중부지역의 나물콩 연구가 더 진행되어 재배적인 측면과 환경적응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안정생산체계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251602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*주저자: Tel. 031-695-0647, E-mail. ideaway@korea.kr